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상한가

상반기만 작년 매출 54.9% 기록... 연매출 450억 넘어설 전망

완주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올 상반기에만 227억여원의 매출을 기록, 올해 안에 연매출 450억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완주군은 올 상반기 11개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27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414억3,000만원을 보였던 2015년 매출액의 54.9%에 이르는 것으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매장별 매출액을 보면 전주 효자직매장이 49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진농협 직매장도 45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구이 해피스테이션이 27억8,400만원, 전주 허가직매장 25억9,100만원, 봉동 둔산직매장 13억8,000만원, 전주

삼천직매장 13억3,700만원 등이었다.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과 용진농협 등이 운영하는 독립 형태의 7개 직매장은 올 상반기에 11개 직매장의 전체 매출액의 80.7%를 담당하며 '로컬푸드 1번지 완주'를 선도했다.

이밖에 고산농협의 고산직매장이 20억5,500만원, 봉동농협의 봉동직매장 13억원을 기록하는 등 단위 농협의 복합직매장도 훌륭한 매출을 구현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 11개 직매장의 연 매출액은 2015년 4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에는 45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012년 4월 직매장 1호 개설로 첫 발을 내딛은 완주군의 로컬푸드는 첫 해 46억원의 매출을 시

작으로, 4년여만에 10배 이상의 매출 신장세를 만들어내는 등의 성과를 이 끌어내고 있다.

또한 2500여 월급받는 농가를 탄생 시키는 것은 물론, 약 6만여명의 로컬푸드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및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5년에 걸친 철저한 준비, 기업농과 전업농 육성이라는 투트랙(two-track) 전략 구사, 1일 유통체계 구축, 철저한 품질관리(잔류농약검사) 등을 추진해온 것이 완주 로컬푸드의 성공요인"이라며 "학교급식 등으로 시장을 넓히고, 잔류농약 검사도 9월부터 국가 수준인 320종으로 늘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 반딧불축제 다웠다'

환경·체험·소득 뽐내며 마무리 20여만명·10억 8천여만원 창출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지난 4일 마무리가 됐다. (사)무주반딧불축제전위에 따르면 9일 간 20여만 명(잠정 집계)이 다녀갔으며 소득은 지난해보다 4억 6천만 원이 증가된 10억 8천여 만 원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년을 맞아 환경축제로서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정성을 쏟았던 무주반딧불축제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들과 주제를 담은 프로그램들로 주목을 받았으며, 4년 연속 정부 지정 최우수축제다운 면모로 친환경·주민참여·소득축제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한밤중에 반딧불이 서식지를 찾아 떠났던 신비탐사(6,400명)를 비롯해 낮에도 반딧불이와 다양한 곤충들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었던 반딧불이관(8,964명), 캠핑과 반딧불축제 주요 프로그램들을 패키지로 즐길 수 있었던 엄마 아빠와 1박 2일 생태탐방(144가족, 545명)이 특히 인기를 끌었으며, 14개 마을이 함께 했던 마을로 가는 축제에도 5,759명이 참여(1억 2천여만 원)해 무주 곳곳의 매력을 만끽했다. 마을로 가는 축제는 마을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마을공동체의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사과수확체험을 비롯해 식음공중으로 음식만들기, 찹옥수수떡 체험, 고풍장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제9회 반딧불물요제 대상 출신 김효진 씨(25세, 한양대 성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이 참석해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성년을 축하해 주고 있다.

가 출연했던 개막식 반디 갈라 콘서트를 비롯해 국악 작곡가 김대성과 크로스 오버 테너 임태경이 만나 무주를 교향곡으로 표현했던 "무주아리랑 음악제"도 이목을 끌었으며, 군민들의 무대였던 무주산골 음악대장(음악동아리 공연)과 전통놀이 시연을 비롯해 농·특산물 특화거리와 향토음식·간식거리(농·특산물+향토음식·간식 8억 3천여만 원), 관내 공공기관들과 노인회, 자원봉사센터 등을 비롯한 주민들이 직접 나섰던 자원봉사도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힘으로 평가를 받았다.

주민들은 축제 시작 전부터 축제장 인근 청소와 전문 자원봉사를 도맡아 했으며 읍면 농·특산물 전시장과

마을 식당을 운영한 것을 비롯해 행사장 곳곳에서 교통정리와 주차를 도왔다. 또한 사진과 시화, 그림 등 각종 전시회와 전통놀이 시연을 통해 반딧불축제가 활기를 불어넣었다.

(사)무주반딧불축제전위원회 이성만 위원장은 "군민들이 함께 준비를 했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비가 오는 중에서도, 휴가와 방학이 끝나고 추석 앞둔 시점에서 위촉된 소비 심리에도 불구하고 이 만큼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며 "20년 역사를 만들어 온 자존심으로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고 방문객들께서 만족하고 좋아해주셨던 부분은 더 발전시켜 대한민국 무주반딧불축제를 대표 환경축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보건소, 찾아가는 암 이야기 교육 실시

공무원 250명 대상

진안군보건소(소장 이승호)는 5일 청원 웰체초회 후 공무원 2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암 이야기(국가암검진) 교육을 군청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북지역암센터 영정호 교수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예방을 위한 암예방 수칙 준수와 식생활 개선 및 운동과 국가암검진의

종류, 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 되었다.

5대 국가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이며, 국가암검진 대상은 만 40세 이상 남·여로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만40세와 66세(76년생, 50년생)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이고, 대장암은 만50세 이상은 매년 1회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 정모씨는 "생활에서 실천하는 암 예방법과 국가암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 빠른 시일 내에 국가 암검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소장은 "국가암 검진으로 각종 암 질환을 조기 발견·치료로 치료율 향상과 의료비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농기센터, '엄마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진행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진안 마이팜 유치원생을 시작으로 관내 6~7세 어린이 및 학부모 150여명과 함께 '엄마와 함께하는 신나는 요리교실'을 진행한다.

이번 요리교실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쌀소비 촉진을 위하여, 바른 먹거리 이론 교육 및 밥피자, 쌀애너지바 실습 교육도 병행하여 재미를 더한다.

식품에 대한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

기에 요리활동을 통해 우리 농산물을 친숙해지고 긍정적인 평생 식습관을 만들어 편식을 예방하고,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교육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와 함께 밥피자를 만들면서, 바쁜 농사일로 자녀들과 여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던 아쉬움을 해소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요즘 패스트푸드나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번에 마련된 요리교실을 통해 아이들이 우리 농산물을 맛보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아이와 엄마가 함께 교감하는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깨끗한 진안만들기 '한마음'

군, 그린빌리지 우수마을 3곳 시상

진안군은 5일 청원초회에서 '2016년도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평가 결과 우수 마을로 선정된 3개 마을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주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녹색실천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마을환경을 정비하는 그린빌리지 사업은 올해 15개 마을이 참가해, 최우수상에는 정천면 하초마을이, 우수상에는 진안을 소토실마을, 장려상에는 진안을 활인동 마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진안의 그린빌리지 사업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전체 308개 마을 중 250여개 마을이 참여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화단만들기, 꽃길조성 등 환경정비, 상징물 만들기 같은 사업을 통해 서로 화합하고 마을

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올 해로 9년째 접어든 진안만의 그린 빌리지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주도적인 마을회의를 거쳐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혼연일체라는 과정을 거쳐 일궈낸 사업으로 마을마다 서로 다른 이미지를 도출하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에 걸맞게 갈수록 깨끗해지고 아름답게 변화하는 우리군의 모습에 주민들에게 감사와 주민소통과 화합으로 일구어 낸 성과에 찬사를 보내고, 더불어 주민 소득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최용득 장수군수는 추석을 앞두고 5일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행사를 가졌다.

이날 최 군수는 (사)한국여성연합장수군지부, 관계공무원 등 40여명과 함께 장수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홍보용 장바구니를 나눠주고 명절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하며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실천, 가격표시

제 이행 등의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 전개하며 추석성수품, 생필품 등에 대한 물가 물가안정 동참을 유도했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자봉센터-여성자원활동센터, 김치나눔 봉사

완주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직무대행 이성운)와 여성자원활동센터(소장 송옥자)는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해 관내 소외계층을 돌보고자 김치 담가드리는 등 진정한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완주군여성자원활동 봉사자들은 대북마을에서 모여 김치 담그기 활동 등에 정성을 쏟았으며, 관내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세대 등 250가정에 직접 전달하는 봉사활동으로 보다 의미 깊은 하루를 보냈다.

또한, 이번 명절 음식 나눔 행사는 완주군 여성자원활동센터와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했으며, 다가오는 추석을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이 소외감 없이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소외된 많은 분들과 함께 밝은 마음과 자신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작고 미약한 활동이지만 보람있고 유익한 봉사활동으로 완주군정에 직접 전달하는 봉사활동으로 보다 의미 깊은 하루를 보냈다.

또한, 이번 명절 음식 나눔 행사는 완주군 여성자원활동센터와 완주군

로컬푸드리포트

무주군, 추석연휴 종합대책 수립

무주군이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수립, 18일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석명절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교통과 재해재난, 쓰레기처리, 상하수도, 의료, 읍·면 상황반 등 6개 반(30명)을 편성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지역 상품 생활안정에 힘쓰는 한편, 안전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도 주력한다.

또한, 비상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명절나기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추석 전후에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해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과 주민들에게 깨끗한 무주를 각인시킬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고 주민들이 명절 준비로 분주한 때를 맞아 군에서는 안전과 생활, 의료 등 8개 분야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며 "연휴기간이 안전하고 즐거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목재펠릿보일러 접수

장수군은 2016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목재펠릿보일러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량인 주택용 58대, 사회복지용 4대 등 총 62대 중 잔여대수 주택용 24대에 한해 로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자는 장수군내 거주 중인 주민과 사회복지시설(주민자치센터)이며 기존 난방용 보일러 교체 혹은 신설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에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산림복지과에서 현장 확인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비는 1대당 4백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용은 보조 70%, 자부담이 30%이며 사회복지용은 보조100%로 자부담은 없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가을무·배추 최저가격 보장

진안군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해주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도청 핵심시책인 삼락농정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하여 노지의 원예농산물 중 올해 하반기 대상품목인 가을무, 가을배추를 대상으로 관내 농지에서 직접 생산물을 생산해야하고 통합마켓팅 전문조직 등에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으로 지원범위는 1,000㎡(300평)~1만㎡(3,000평)이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마켓팅 전문 조직과 체결한 출하 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소방서, 산행중

마비증상 환자 1명 구조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3일 오후2시30분경 장수군 비행기재 야산에서 마비증상을 일으킨 소모(73)씨를 헬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하였다고 전했다.

소씨는 부인과 함께 산에 오르던 중 갑자기 운ลม에 마비증상을 일으켜 의식이 혼미해졌으며, 같이 산행 중이던 부인이 119에 신고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원들은 상황이 급박함을 감지하고 상황실로 헬기를 요청하여 소씨를 전북대병원으로 이송조치하였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진장소방서 장의기 팀장은 "산에서 사고를 당해 119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정확한 위치와 환자의 상태를 알려줘야 하며, 부득이하게 혼자 산행할 경우 출발지, 목적지, 도착예정시각을 지인에게 미리 알려야 도움을 받을수있다"며 안전한 산행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